

8. 다음은 고려 성종이 유교적 정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들이다. 이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지방관을 파견하고 향리 제도를 마련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다.
 ㉡ 국자감을 정비하고, 지방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파견하였다.
 ㉢ 과거제도를 정비하고 과거 출신자들을 우대하여 유학에 조예가 깊은 인재들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였다.
 ㉣ 3성 6부제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 관제를 마련하였다.
 ㉤ 최승로가 올린 시무 10조의 건의를 수용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고려 시대의 무신 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무신들은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하면서 주요 관직을 독차지하였다.
 ② 최충헌은 최고 집정부 구실을 하는 교정도감을 설치하였고, 도방을 확대하여 군사적 기반을 확립하였다.
 ③ 최우는 문무 백관의 인사 행정을 담당하는 서방과 능력 있는 문신을 등용하기 위한 정방을 설치하였다.
 ④ 삼별초는 좌별초와 우별초 및 몽골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병사들로 조직된 신의군으로 구성되었다.

10. 다음의 역사서가 저술된 시대에 만들어진 문화유산은?

동명왕의 사적은 변화와 신이로 여러 사람의 눈을 현혹시킬 일이 아니요, 실로 나라를 세운 신의 자취인 것이다. 이러하니 이 일을 기술하지 않으면 앞으로 후세에 무엇을 볼 수 있으리오.

- ① 부석사 무량수전 ② 광개토왕릉비
 ③ 석촌동 고분군 ④ 법주사 팔상전

11. 다음 밑줄 친 ‘이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김익희가 상소하여 말하기를, “요즘 이 기구가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모두 취급합니다. 의정부는 한갓 걸 이름만 지니고 육조는 할 일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름은 ‘변방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에 대한 판정이나 비빈 간택까지도 모두 여기서 합니다.”라고 하였다.

- ① 명종 때에 을묘왜변을 계기로 처음 만들어진 임시회의 기구이다.
 ② 세도정치기에도 핵심적인 정치기구로 자리 잡았다.
 ③ 의정부의 의정과, 공조판서를 제외한 판서 등 주요 관직자가 참여하는 합좌기관이다.
 ④ 고종 때에 흥선대원군에 의해 사실상 폐지되었다.

12. 다음은 조선 시대 봉당에 대한 설명이다. ㉠-㉣에 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람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는 후, 동인이 우세한 가운데 정국이 운영되었다. 동인은 ㉡온건파인 남인과 급진파인 북인으로 나뉘었다. 그 후 ㉢서인과 남인이 격렬하게 대립하였으며, 나중에는 서인에서 갈라져 나온 ㉣노론과 소론이 치열하게 경쟁하였다.

- ① ㉠ - 척신 정치의 잔재 청산 문제에서 주로 소극적인 부류가 서인, 적극적인 부류가 동인으로 형성되었다.
 ② ㉡ - 정여립 모반 사건 등을 계기로 나뉘어져 처음에는 남인이 정국을 주도하였으나 임진왜란 이후 북인이 집권하였다.
 ③ ㉢ - 예송논쟁에서 나타난 예론의 차이는 신권을 강화하려는 서인과 왕권을 강화하려는 남인 사이의 정치적 입장과 연결되었다.
 ④ ㉣ - 노론은 실리를 중시하고 북방개척을 주장하는 경향을 보이며, 소론은 대의명분을 중시하고 민생안정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13. 다음은 조선 시대 양반 이후 수취 체제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정법에서는 연분 9등법을 따르지 않고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시켰다.
 ② 대동법의 시행으로 공납이 전세화되어 농민은 대체로 토지 1결당 미곡 12두만 납부하면 되었다.
 ③ 영정법에 따라 전세의 비율이 이전 보다 다소 낮아져 대다수 농민의 부담이 경감되었다.
 ④ 대동법은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혁론으로 제기되었다.

14. 조선 후기의 가족 제도와 사회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태어난 순서대로 족보에 기재하였다.
 ② 동성마을이 많아지고 부계 중심의 족보가 편찬되었다.
 ③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들이는 대신에 딸과 외손자가 제사를 지냈다.
 ④ 혼인은 친영제에서 남귀여가혼으로 변화되었고, 재산은 균등하게 상속되었다.

15. 다음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찍이 세조께서, “우리 동방에는 비록 여러 역사서가 있으나 장편으로 되어 귀감으로 삼을 만한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관리들에게 명하여 편찬하게 하셨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주상께서 그 뜻을 이어받아 서거정 등에게 편찬을 명하였습니다. (중략) 이 책을 지음에 명분과 인륜을 중시하고 절의를 숭상하여, 난신을 성토하고 간사한 자를 비난하는 것을 더욱 엄격히 하였습니다.

- ①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정리하였다.
- ② 세가, 지, 열전 등으로 구성되었다.
- ③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만주지방까지 확대하여 한반도 중심의 협소한 사관을 극복하는 데 힘썼다.
- ④ 중국 및 일본의 자료를 참고하여 민족사 인식의 폭을 넓히는데 이바지하였다.

16. 다음은 조선 시대 의궤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왕의 행적과 국정 전반을 기록한 것으로 천재지변에 관한 기록까지 소상히 담고 있어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 ② 조선 초기부터 제작되었으나, 임진왜란 이전의 것은 현재 남아 전해지는 것이 없다.
- ③ 1866년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략하였다가 40여 일만에 물러가면서 외규장각에 있던 다수의 의궤를 약탈하였다.
- ④ 프랑스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던 외규장각 의궤는 2011년 임대의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반환되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17. 다음 대한제국기의 개혁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황제권 수호와 절대화에 필요한 대한국 국제 제정
- ② 입헌 군주제와 의회 정치 추진
- ③ 다양한 시책을 통한 황실 재정 확충
- ④ 양전과 지계 발급 사업 실시

18. 다음 자료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탐관오리는 그 죄상을 조사하여 엄징한다.
· 노비 문서는 모두 소각한다.
· 칠반천인(七班賤人)의 대우를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량감을 없앤다.
· 관리 채용에는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 토지는 평균 분작한다.

- ① 고부 농민봉기는 조병갑의 학정에 항거한 사건이며, 정부는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하여 동학교도를 색출하고 탄압하였다.

- ② 청이 조선 정부의 요청으로 파병하자, 일본은 임오군란 때 맺은 텐진(천진)조약을 구실로 파병하였다.
- ③ 농민군은 전주화약의 체결로 전라도 일대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였다.
- ④ 남접과 북접의 농민군은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였고, 보은 전투에서 대패한 후 해산하였다.

19. 다음 중 일제의 경제침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910년대 시작된 토지조사사업은 토지의 소유권, 토지 가격, 지형 및 용도를 조사한 것으로, 토지에 대한 지주의 권리와 농민의 경작권을 함께 인정하였다.
- ②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은 더 많은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수리시설의 확대와 품종교체, 화학비료 사용증가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 ③ 1930년대 이후 일제는 일본을 발전된 공업지역으로, 만주를 농업과 원료 생산 지대로 만들고, 한반도를 경공업 중심의 중간 지대로 만들기 위해 조선공업화 정책을 펼쳤다.
- ④ 1940년대 전시동원체제 하에서 세금을 늘리고 저축을 강요하여 마련된 자금은 군수기업에 집중 지원되었다.

20. 다음 (가), (나)는 해방 후 두 정치인의 발언이다. 아래의 <보기> 중 두 정치인이 발언한 시점 사이에 일어난 사건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한 미소 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게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할 것이다.

(나) 현시에 있어서 나의 유일한 염원은 3천만 동포와 손을 잡고 통일된 조국의 달성을 위하여 공동 분투하는 것 뿐이다. 이 육신을 조국이 수요(需要)로 한다면 당장에라도 제단에 바치겠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에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보기>

- ㉠ 포츠담선언
- ㉡ 제주 4·3 사건
- ㉢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 ㉣ 유엔총회에서 남북총선거 결정
- ㉤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 ㉥ 남북지도자회의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14년 경찰직 9급 한국사 정답 및 해설

1. [정답 및 해설] ③

♣ 문제분석

출토된 유물 등을 통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의 유적지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① 부여 송국리 유적- 비파형동검

부여 송국리 유적은 충남 부여 송국리에 있는 **청동기 시대 대표적 집터유적**이다. 민무늬토기, 붉은 간 토기 등 다양한 토기와 돌낫, 돌도끼 등의 간석기, **비파형동검**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또한 **여주 혼암리와 더불어 탄화된 벼씨가 발견되어 일부저습지에서 벼농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② 양양 오산리 유적- 뼈 낚시바늘

양양 오산리 유적은 한반도 중부 동해안 지역의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집자리 유적**이다. 출토유물로는 빗살무늬토기와 함께 석기로는 돌도끼, 돌칼 등과 더불어 **이음낚시바늘(묶음 낚시 바늘)**의 머리 부분이 약 70여 점 발굴되었다.

(이음낚시바늘은 돌로 만들어진 머리 부분의 아래쪽에 뼈로 만들어진 갈고리 부분을 결합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음낚시바늘은 우리나라 남부 지역과 일본의 서북 규슈(九州) 지방까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고대 한·일 간에 상호 교류를 알려 주는 중요한 유물이다.)



양양 오산리 유적에서 출토된 이음낚시 바늘

④ 부산 동삼동 유적- 빗살무늬토기

부산 동삼동 유적은 신석기시대의 조개무지(패총) 유적으로 우리나라 남해안의 **신석기시대 유적을 대표**하고 있다. **빗살무늬토기**와 덧무늬 토기 등이 출토되었고 돌도끼, 화살촉, 뼈바늘, **조개껍데기 가면** 등 다양한 신석기 유물이 출토되었다.

♣ 오답노트

③ 여주 혼암리 유적(청동기 유적) - 오수전 (초기 철기시대 유적)

여주 혼암리 유적은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혼암리 있는 **청동기시대의 주거유적**으로 민무늬토기, 붉은 간토기, 반달돌칼과 같은 토기와 석기 등이 발견되었고, 토기 안에서 **탄화된 쌀(2알) ·겉보리(2알) ·조(1알) ·수수(1알)**가 발견되어 **부여 송국리와 함께 청동기에 벼농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유적이다.

♣ 중국과의 교류를 알 수 있는 초기 철기시대 유물들-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붓

춘추전국시대 사용된 **명도전**과 진나라에서 사용한 **반량전**, 한나라에서 사용한 **오수전**이 **초기 철기 시대**에 한반도에서 발견됨으로서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엿볼 수 있다.. **경남 창원 다호리에서 발견된 붓**도 이 시기 **중국과의 교류 내지, 한자의 사용**을 추정할 수 있는 유물이다.

2. [정답 및 해설] ③

♣ 문제분석

고조선과 관련된 일반적인 학습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이다.

♣ 고조선의 발전과 멸망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의 기록에 따르면 **고조선은 단군왕검이 건국하였다(기원전 2333년)**. 단군왕검은 당시 지배자의 칭호였다.

고조선은 초기에는 요령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점차 인접한 족장사회를 통합하면서 한반도까지 발전하였으며 기원전 3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대동강 유역의 왕검성(평양)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기원전 3세기경에는 부왕, 준왕과 같은 강

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 세습과 더불어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이 설치되었고 요서 지방을 경계로 연나라와 대립할 만큼 강성하였다. **기원전 194년에는 중국 유이민 집단인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어**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고 중앙 정치 조직을 갖춘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여 정복 사업으로 광대한 영토 차지하였다. 그의 손자 우거왕 때는 동방의 예나 남방의 진(辰)이 직접 중국의 한과 교역하는 것을 막고, 중계무역의 이득을 독점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군사적 발전을 기반으로 한 고조선의 팽창에 위협을 느낀 한의 무제는 우거왕 때 수륙 양면으로 대규모 침략을 감행하였다. **고조선은 1차의 점전(패수)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이후 약 1년에 걸쳐 한의 군대에 완강하게 대항하였다. 그러나 장기간의 전쟁으로 지배층에 내분이 일어나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멸망하였다(기원전 108년). 한나라는 고조선 멸망 후 일부 지역에 4개의 군현을 설치하였고 토착민의 반발이 속에 한 군현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려는 목적에서 엄한 율령 시행한 결과 법 조항이 60여 조로 증가하고 풍속도 각박해졌다. 이후 고구려군의 공격(4세기 초 미천왕)으로 완전히 소멸하였다.

♣ 위만조선의 의미

위만은 **고조선으로 들어올 때에 상투를 틀고 조선인의 옷[만이복(蠻夷服, 호복, 오랑캐 옷), 위만조선]]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왕이 된 뒤에도 나라 이름을 그대로 조선이라 하였고, 그의 정권에는 토착민 출신으로 높은 지위에 오른 자가 많았다. 따라서 위만의 고조선은 단군의 고조선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오랑캐 옷’에 대한 내용설명 추가

위만 조선은 사마천의 『사기(史記)』와 반고의 『한서(漢書)』의 조선전에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후의 중국문헌이나 우리나라 문헌에도 위만을 언급할 때 주로 이 책들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그래서 사서 원문 그대로 이해하면 오랑캐 옷(당시 중국에서는 주변민족을 낮추어 오랑캐라 표현함)이며 이를 우리 측으로 해석하면 조선인의 옷이 된다.

+ 개인적으로 시험 끝난 후에 수험생들의 질문, 항의(출제자?)전화글 많이 받았는데 시험에 출제되었다하더라도 전혀 문제 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국정교과서의 조선인과 달리 오랑캐라는 표현을 쓴 것은 분명 의문이며 공무원 시험에서는 자체를 하거나 출처를 분명히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더욱 아쉬운 것은 정확한 정답이 보이는데, 긴장한 상태에서 시간을 단축하고 빨리 푸는 것에 대해 집중하다 보니 틀린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그게 더 아쉽습니다 ㅠㅠ 힘내세요!!

오답노트

③ 기원전 194년 위만은 **우거왕(→ 준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 우거왕

고조선의 마지막 왕으로서 위만의 손자이다.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군사력으로 한반도 남부의 진, 동방의 예 등과 한나라 사이의 중계무역을 독점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한 무제가 수륙군을 이끌고 침입하자 싸움을 벌였으나 자객에게 살해되었다.

3. [정답 및 해설] ④

♣ 문제 분석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나타난 부여에 대한 내용이다.

♣ 부여

부여는 만주 길림 일대의 송화(송화)강 유역의 평야지대에서 성장하였다. 부여는 이미 1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하였고,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는 등 발전된 국가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북쪽으로는 선비족, 남쪽으로는 고구려와 접하고 있다가 3세기 말 **선비족의 침략**을 받아 크게 쇠퇴하였고, 결국은 문자왕(494년) 대에 고구려에 편입되었다.

부여는 5부족 연맹체로서 왕 이외에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는 이름의 가(加, 부족장)들이 각기 행정 구획인 사출도를 다스렸다. 가(加, 부족장)들은 왕을 추대하기도 하고, 흉년이 들면 왕에게 책임을 묻기도 하였으므로 왕권이 미약했다고 볼 수 있다. 농경과 목축이 발달했으며 특산물로는 말, 주옥, 모피 등이 있었다.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많은 때는 100여명)을 꺼묻거리와 함께 묻는 풍습인 순장과 남의 물건을 훔치면 12배의 갚아야 하는 1책 12법이 존재하였다. 전쟁 등이 일어나면 제천의식을 행하고 소를 죽여 그 굽으로 길흉을 점치는 우제점법의 풍습도 존재하였다. 또한 수렵사회의 전통으로서 12월에 제천행사인 영고를 열어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가무를 즐겼으며, 죄수를 풀어 주기도 하였다.

오답노트

④ 3세기 말 **읍루족(→ 선비족)**의 침략을 받아 크게 쇠퇴하였고 결국 고구려에 편입되었다.

♣ 읍루족-오답을 만들기 위해서 제시한 것으로 보이나, 공무원시험에서 따로 공부할 필요성은 없을 듯 함

만주 동부 또는 연해주 등지에 살았던 고대 민족이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2세기 부여의 영향권에 있었고 북옥저를 자주 침략한 기록도 남아있다. 3세기 전반에는 부여의 영향력 아래에서 독립한 것으로 보이며 6세기 이후 역사적 종적을 감춘 듯 보인다. 숙신의 후예이고 말갈의 전신이라는 설도 있으나 확실치는 않다.

4. [정답 및 해설] ②

♣ 문제 분석

삼국시대의 단골 문제인 주요 사건 또는 왕들의 업적을 시기순으로 나열하는 문제이다.

- ㉠ 고구려 장수왕은 죽령 일대부터 남양만을 연결하는 선까지 판도를 넓혔다.→평양 천도(427년) 이후 남진 정책을 추진한 결과 백제의 수도 한성(위례성)을 함락하고 개로왕을 죽이는 등 **한강 전 지역을 차지(475년 이후)**하여 남양만부터 죽령을 연결하는 선까지 세력을 확장하였다.
- ㉡ 금관가야가 신라에 병합되었다.→ 신라와 백제의 다툼 속에서 후기 가야 연맹은 분열하여 김해의 **금관가야가 신라의 법흥왕에게 정복당하였고(532년)**, 가야의 남부 지역은 신라와 백제에 의하여 분할 점령되었다.
- ㉢ **백제 성왕은 수도를 사비로 옮기고(538년)** 신라와 연합하였다.
- ㉣ 신라 진흥왕은 북한산을 순행하고 순수비(**북한산비, 555년**)를 세웠다.
- ㉤ 대가야가 신라에 병합되었다.→ **대가야는 신라 진흥왕 때(562년) 병합**되었다.

5. [정답 및 해설] ④

♣ 문제 분석

신라의 왕호변천에 따른 역사의 의미(특징)을 묻는 문제이다. 내물왕과 지증왕의 경우에는 쉽게 내용을 알 수 있지만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의 경우에는 7차 국정교과서에도 있는 간단한 내용이지만 꼼꼼이 보지 않는 경우라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 신라의 왕호 변천

왕호	사용 시기	의미	역사적 의미
거서간(居西干)	박혁거세	추장, 군장	[거서간→차차웅]정치적 군장과 제사장의 기능이 분리되면서 그 칭호의 분화가 이루어졌다.
자차웅(次次雄)	남해	무당, 제사상	
이사금(尼師今)	유리~ 흘해	연장자, 연맹자	이 왕호가 사용되던 시기에 신라 왕위는 박·석·김의 3성이 교대로 차지하였다. 유력 집단의 우두머리는 이사금으로 추대 되었고, 주요 집단들은 독자적인 세력 기반을 유지하고 있었다.
마립간(麻立干)	내물~소지	대군장	김씨에 의한 왕위 계승권이 확립 되었으며, 왕의 칭호도 대군장을 의미하는 마립간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과 왕권의 성장 이 마립간이라는 이름에 반영된 것이다.
왕(王)	지증왕	중국식 왕호	한화(漢化)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의 제도를 채택 하고 정치 제도를 더욱 정비하여 국호를 사로국에서 신라(新羅)로, 왕호를 마립간에서 왕(王)으로 고쳤다.

6. [정답 및 해설] ④

♣ 문제 분석

발해는 최근 3년 모든 직렬 공무원 시험 빈출 1위 주제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모두 출제되고 있습니다.

♣ 발해

- ㉠ 발해는 영역을 확대하여 옛 고구려의 영토를 대부분 차지하였지만 그 영역에는 말갈족이 다수 거주하였다.
- 발해는 **9세기 전반의 선왕 때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지역으로 진출하였다. 또한 남쪽으로는 신라와 국경을 접할 정도로 넓은 영토를 차지하여 **옛 고구려의 영토를 대부분 차지**하였다.

☞ 오답노트

- ㉡ 발해는(→통일신라) 이종 기단에 3층으로 쌓는 석탑 양식이 유행하였다.
- 통일 신라에 들어와 석탑은 이종 기단 위에 3층으로 쌓는 전형적인 통일신라의 석탑 양식을 완성**하였다. 통일 신라의 감은사지 3층 석탑과 불국사 3층 석탑이 대표적이다.

□ 흙으로 구워 만든 이불병좌상이 많이 보인다.

785년~794년 동안 발해의 수도로 5경 중 하나였던 동경용원부(東京龍原府) 옛터에서 8구 이상의 이불병좌상이 출토되었다. 이 불상은 흙으로 구워 만든 것으로, 두 분의 부처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㉔ 발해는 지방을 5경 15부 62주로 나누었으며, 지방 행정의 말단 단위인 촌락에 수령을 파견하여 다스렸다.

→ 발해는 선왕 대 5경 15부 62주의 지방행정조직을 정비하였다. 부에는 도독, 주와 현에는 각각 자사와 현승을 파견하여 다스리게 하였다. 하지만 **지방 행정의 말단 단위인 촌락은 주로 말갈족으로 구성되었으며, 토착 유력자(말갈인)인 수령(首領)이 촌장이 되어 지배하였다.**

▶ 참고 고려, 조선 시대의 지방관 → 수령(守令)

㉕ 대조영이 698년 길림성 돈화시 동모산 기슭에서 국호를 '진(震)'이라 하고 건국하였으며, **2대 무왕(→대조영, 고왕)**에 이르러 '발해'로 개칭하였다. 발해는 고구려 장군 출신 대조영(고왕, 698~719년) 이 고구려 유민과 말갈 집단들을 규합하여 만주 길림의 돈화시 동모산 기슭에서 건국하였고, 국호를 진(震), 연호를 천통이라고 하였는데, 뒤에 국호를 발해로 고쳤다.(대조영 대, 713년)

7. [정답 및 해설] ④

♣ 문제 분석

고대의 경제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보고 있다.

♣ 고대의 경제 모습

① 삼국은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일정 지역의 토지와 농민을 식읍으로 주었다.

→ 삼국은 전쟁포로를 귀족이나 병사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군공을 세운 사람에게 일정지역의 토지와 농민을 식읍으로 하사하였다.

② 통일신라 민정문서는 남녀 인구 수와 소·말의 수, 토지 면적 등을 조사하여 3년마다 작성되었다.

→ 1933년 일본 나라현 동대사 정창원에서 발견된 민정문서는 통일신라 서원경 부근의 4개 촌락과 관련하여 촌주가 남녀 인구 수와 소·말의 수, 토지 면적 등의 변동사항을 매년 조사하여 3년마다 작성한 것으로서 당시 촌락의 경제 상황과 국가의 세무 행정을 알 수 있는 중요 자료이다.

③ 신라에서는 4~5세기를 지나면서 철제 농기구가 점차 보급되었다.

→ 삼국시대의 농기구는 돌이나 나무로 만든 것과 일부분을 철로 보완한 것을 사용하다가 4,5세기를 지나면서 철제농기구가 점차 보급되었다. 쟁기, 호미, 괭이 등 철제 농기구가 6세기에 이르러 널리 사용되었으며, 우경도 점차 확대되었다.

♣ 오답노트

④ 삼국 시대에는 **농업 생산력이 발달하여 수도 뿐 아니라 농촌 각지에서도** 시장이 번성하였다.

→ **삼국 시대에는 농업 생산력의 수준이 낮아 수도 같은 도시에서만 시장이 형성**되었다. 신라는 5세기 말 소지왕 대 경주에 시장을 열어 물품을 매매하게 하였고, 6세기 초 지증왕 대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8. [정답 및 해설] ②

♣ 문제 분석

성종의 유교적 정치 질서의 강화와 관련하여 7차 국정 교과서 66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그대로 출제되었으므로 있는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올려 유교의 진흥과 과도한 재정 낭비를 가져오는 불교 행사의 억제를 요구하고, 태조로부터 경종에 이르는 5대 왕의 치적에 대한 잘잘못을 평가하여 교훈으로 삼도록 하였다. 성종은 **최승로의 진의를 수용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성종은 지방관을 파견하고 향리 제도를 마련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다. 또 국자감을 정비하고, 지방에 경학박사와 의학 박사를 파견하여 유학교육의 진흥에 노력하였다. 아울러 과거 제도를 정비하고 과거 출신자들을 우대하여 유학에 조예가 깊은 인재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2성 6부제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 관제도 새로 마련하였다.

♣ 오답노트

㉔ 3성 6부제(→2성 6부제)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 관제를 마련하였다.

㉕ 최승로가 올린 **시무 10조(→28조)**의 건의를 수용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㉔ 보기에 대한 추가 설명

경찰 수험생을 지도하는 한국사 강사로서 수험생들에게 한 문제, 한 문제가 얼마나 소중한 줄 너무나 잘 알기에 희망 섞인 내용보다는 확신 있는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단언컨대, 복수정답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2번이 정답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7차 국정 교과서 개편 이전의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가 상, 하로 나누어진 시기의 교과서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성종은 또 중앙의 통치 기구 개편에 착수하였다. 먼저 당의 제도를 모방한 3성 6부제를 기반으로 하고, 태봉과 신라의 제도를 참작하여 중앙 관제를 정비하였다.’

하지만 위의 내용은 교과서 개편 이전의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㉔ 보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료적 근거는 충분히 있지만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사는 1+1= 2라는 과학이 아닙니다. 더 많은 문헌과 유물 등이 발견됨으로서 저희는 역사적 사실에 더 다가 갈 수 있습니다. 이는 역사에 100%는 없다는 말이며, 결국 수많은 관련 사료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합의를 거쳐 어떠한 주장이나 그러한 사실을 하나의 기준을 만들고 저희는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차 국정교과서 안의 문장을 그대로 인용한 문제를 오답을 인정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출제의도 자체가 교과서에 바탕을 두고 숫자 3과 2를 변별하는 보기입니다.

2012년 고등학교 3학년을 마지막으로 국정교과서 세대는 끝이 났지만, 여전히 각종 기본서나 공무원 시험에서의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은 국정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배우는 기본서에도 몇가지 각기 다른 내용이나 상충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어떠한 내용이 옳고 그른지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관련된 사료들을 다 근거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9년 동안의 경험을 돌이켜 볼 때 수 많은 한국사 관련 사람들이 모여 합의를 도출해 낸 국정교과서는 공신력 있는 한국사 시험에서는 바이블입니다.

이렇게 확신해서 답변을 드리는 이유는 주말 동안 많은 학생들이 문의를 주고 있으며, 학생들 중 상당수가 복수정답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면 이의제기 할 수 있도록 그와 관련해서 많은 시간 연구도 해보고 한국사관련 주요 기구에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본 결과 가능성은 거의 없는 듯합니다.

너무 매정하다 생각하지 마시구요, 2012년 3차 때 3번 삼국시대 불교 문제와 2013년 1차 때 한강유역 쟁탈관련 비석 문제가 출제 되었을 때 학생들과 함께 열 올리던 생각이 납니다. 그 동안 잠도 많이 못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노력 많이 하셨는데요, 조만간 확정된 결과가 나오는 만큼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지내시길 부탁드립니다.

9. [정답 및 해설] ㉔

♣ 무신집권기의 권력기구

① 무신들은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하면서 주요 관직을 독차지하였다.

➔ 무신들은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하면서 주요 관직을 독차지하고 토지와 노비를 늘려 나갔으며, 저마다 사병을 길러 권력 쟁탈전을 벌였다.

② 최충현은 최고 집정부 구실을 하는 교정도감을 설치하였고, 도방을 확대하여 군사적 기반을 확립하였다.

➔ 최충현은 최고 집정부의 구실을 하는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권력을 행사하였다. 또, 사병 기관이 도방을 확대하여 신변을 경호하였다. 도방은 삼별초와 함께 최씨 정권을 유지하는 군사적 기반이 되었다.

④ 삼별초는 좌별초와 우별초 및 몽골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병사들로 조직된 신의군으로 구성되었다.

처음에 최우가 나라 안에 도적이 많은 것을 근심해 용감한 병사를 모아 매일 밤 순행하며 폭행을 막게 했으므로 이를 야별초라 하였다. 그러나 도적이 각 도에서 일어남에 이르러 별초를 나눠 보내 잡게 하였다. 그 군사가 너무 많아져 드디어 나눠 좌·우별초로 삼았다. 또 나라 사람들이 몽고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는 일부로 삼아 신의군이라 불렀으니 이들이 모두 합쳐 삼별초라 불렀다.

♣ 오답노트

③ 최우는 문무 백관의 인사 행정을 담당하는 서방(→정방)과 능력있는 문신을 등용하기 위한 정방(→서방)을 설치하였다.

➔ 최충현의 뒤를 이은 최우도 교정도감을 통하여 정치 권력을 행사하였고, 더 나아가 자기 집에 정방을 설치하여 문무 백관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정국이 안정되면서 최우는 문학적 소양과 함께 행정 실무 능력을 갖춘 문신들을 등용하여 고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10. [정답 및 해설] ①

♣ 사료분석-『동명왕편』

이규보가 편찬한 것으로서 고구려 건국의 영웅인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일종의 영웅 서사시이다. 이규보의 전집 『동국이상국집』(아들 함(涵)이 1241년 전집(全集) 41권을, 그 이듬해에 후집(後集) 12권을 편집하여 간행하였다.)에 실려 있다. 『동명왕편』은 무신 정변 이후의 사회적 혼란기에 유교적·합리적인 사관을 비판하고 고구려 계승 의식을 토대로 고구려의 전통을 노래하였다.

♣ 고려 후기의 문화유산

부석사 무량수전



♣ 고려 후기 목조 건축물(주심포 양식)

고려 전기에는 주로 주심포 양식이 유행하였는데, 13세기 이후에 지은 일부 건물이 지금도 남아 있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가장 오래 된 건물로 알려져 있고,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과 예산 수덕사 대웅전은 균형 잡힌 외관과 잘 짜여진 각 부분의 치밀한 배치로 고려 시대 건축의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오답노트

광개토대왕릉비



♣ 414년(장수왕 2년)

□ 주요 내용 및 의미

- (1) 첫째 부분 : 주몽의 신화 및 고구려의 건국과정 기록
- (2) 둘째 부분 : 광개토 대왕의 정복활동에 대한 기록
 - 395년 비려,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으로 진출(396년 병신년 부분), 398년 숙신 정벌 / 400년 신라 지방의 왜구 정벌 / 410년 동부여 정벌 /
- (3) 셋째 부분 : 광개토대왕릉의 묘지기 연호 330호의 출신지 기록

석촌동 계단식 돌무지 무덤



♣ 백제 초기 한성 시기(위례성)

초기 고구려 고분(돌무지무덤)과 흡사하여 백제 건국의 주도 세력이 고구려계통임을 증명하고 있다.

범주사 팔상전



♣ 17세기(조선 후기)

규모가 큰 다층 건물로 내부가 하나로 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불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반 지주층의 경제적 성장을 반영하고 있다.

11. [정답 및 해설] ①

♣ 사료분석

비변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 비변사

설치	중종 때 삼포왜란(1510년)을 계기로 설치한 국방 임시회의 기구
상설 기구화	명종 때 을묘왜변(1555년)을 계기로 상설 기구화
기능 확대	임진 왜란(1592년) 이후
구성	전·현직 정승(의정), 공조를 제외한 5조의 판서와 참판, 각 군영 대장, 강화 유수, 대제학 등
역할	군사 문제뿐 만 아니라 외교·재정·사회·인사 문제 등 거의 모든 정무를 총괄
특징	정청(정책의 의결, 시정 조정)과 권부(정치권력집중)라는 이중성이 상존 → 중앙집권적 관료주의를 심화시킴
결과(폐단)	왕권약화, 의정부, 6조 체제 유명무실화 세도 정치기네는 비변사가 핵심적인 정치 기구로 자리잡았으며, 유력한 가문 출신의 몇 명이 실제 권력을 행사함
폐지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고종) 때 폐지됨

💡 오답노트

① 명종 때에 을묘왜변(→중종 때 삼포왜란)을 계기로 처음 만들어진 임시회의기구이다.

12. [정답 및 해설] ④

♣ 봉당정치의 전개

① 처음에 봉당은 척신 정치의 잔재 청산을 둘러싼 갈등과 이조전랑직을 둘러싼 대립으로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되었다.

구분	출신	중심인물	척신정치 개혁	학맥	학파
동인	신진사람	김효원	적극적	이황, 조식, 서경덕	영남학파
서인	기성사람	심의겸	소극적	이이, 성혼	기호학파

② 동인은 정여립의 모반사건(기축옥사, 1589년)과 정철의 건저의(建儲議) 사건 이후 정철(서인)에 대한 처벌을 둘러싸고 온건한 입장의 남인과 강경한 입장의 북인으로 나누어졌다.

남인	북인
이황의 학통계승, 온건파로 초기 정국 주도, 유성룡 등	서경덕, 조식의 학통 계승, 급진파로 임진왜란 후 정국 주도, 이산해 등

③ 현종 때에는 효종의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예송이 발생하면서 자의대비(조대비) 복상(服喪)문제로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구분	서인	남인
기해예송(1659년) 서인의 승리	1년설(송시열), 천하동례(天下同禮)	3년설(윤휴, 허목), 왕자례부동사서(王者禮不同士庶)
갑인예송(1674년) 남인의 승리	9개월설	1년설
예송 논쟁 근거	『주자가례』, 신권 강화	『국조오례의』, 왕권 강화

☞ 오답노트

④ ㉔ - **노론(→소론)**은 실리를 중시하고 북방개혁을 주장하는 경향을 보이며, **소론(→노론)**은 대의명분을 중시하고 민생 안정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 경신환국 이후 상대 봉당인 남인에 대한 탄압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송시열 중심의 노론(노장파)과 윤증 중심의 소론(소장파)으로 나뉘어졌다.

구분	노론	소론
중심 인물	송시열(노장파)	윤증(소장파)
학통	이이	성혼
특징	· 주자 중심의 성리학 절대시 · 민생 정치 강조 · 대의 명분 중시	· 성리학의 탄력적 적용 · 실리 추구 · 적극적인 북방 개혁 주장

13. [정답 및 해설] ③

♣ 영정법(인조)

15세기의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은 매우 번잡하여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고, 16세기에는 아예 무시된 채 최저율의 세액(4~6두)이 적용되고 있었다. 정부는 이에 **연분 9등법을 따르지 않고 풍년이건 흉년이건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시켰다.**

이러한 개편으로 **전세의 비율이 이전보다 다소 낮아졌으나 대다수 농민이 소작농인 가운데 농민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여러 명목의 수수료, 운송비, 자연 소모에 대한 보충 비용 등이 함께 부과되었기 때문에 농민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폐단**을 낳게 되었다.

♣ 대동법(광해군~숙종)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정부의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가자,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개혁론이 제기되어 결국 대동법이 시행되었다.**

대동법은 집집마다 부과하여 토산물을 징수하던 공물 납부 방식을 상공에 한해서 토지의 결수에 따라 쌀, 삼베나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였다. 정부는 수납한 미·포·전으로 공인을 통하여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여 쓰게 되었다.

공납이 전세화 되어 농민은 대체로 토지 1결당 미곡 12두만 납부하면 되었다. 이 때문에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에게 과중하게 부과된 공물 부담은 없어지거나 어느 정도 경감되었다.

대동법은 광해군 때 이원익, 한백경의 주장으로 선혜청을 설치하고 경기도에서 시험적으로 처음 실시되었고, 인조 때 강원도, 효종 때 충청도·전라도, 숙종 때 함경도, 평안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실시되었다.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데 100년이란 기간이 소요된 것은 양반 지주들의 반대가 심하여 이들의 이해를 배려하면서 확대·시행하였기 때문이다.

대동법 시행에 따라 국가에서 공가를 미리 받아 국가로 필요로 하는 제품을 구매, 납부하는 공인이 등장하게 되었다. 공인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장시가 발달하고 상공업과 수공업이 발전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품화폐 경제도 발전하였다.

하지만 대동법은 상공에 한해서 시행이 된 것이며, 여전히 별공과 진상은 현물로 거두어들였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납비의 비율보다 유치미의 비율이 낮아져감에 따라 수령, 향리들의 수탈이 가혹해져 갔다.

☞ 오답노트

③ 영정법에 따라 전세의 비율이 이전 보다 다소 낮아져 대다수 농민의 부담이 경감되었다.

➔ **전세의 비율이 이전보다 다소 낮아졌으나 대다수 농민이 소작농인 가운데 농민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여러 명목의 수수료, 운송비, 자연 소모에 대한 보충 비용 등이 함께 부과되었기 때문에 농민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폐단**을 낳게 되었다.

14. [정답 및 해설] ②

♣ 조선 전기~중기까지의 가족제도

☐ **남귀여가혼**: 혼인 후에 남자가 여자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었다.

☐ **자녀 균분 상속**: 아들과 딸이 부모의 재산을 똑같이 상속받는 경우가 많았다. 집안을 잇는 자식에게 5분의 1의 상속분을 더 준다는 것 외에는 모든 아들과 딸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관행이었다.

- 제사의 분담: 재산 상속을 같이 나누어 받는 만큼 그 의무인 제사도 형제가 돌아가면서 지내거나 책임을 분담하기도 하였다.
- 가계 계승: 아들이 없을 때 딸·외손이 제사를 지내거나 가계를 계승하기도 하였으며, 족보에는 남녀 관계없이 출생 순으로 기록하였고 모계·사위도 기재되었다.

♣ 조선 후기(17세기 이후)의 가족제도

성리학적인 의식과 예절이 발달하고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확립되어 갔다.

- 친영 제도 정착: 혼인한 여성은 출가외인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고, 혼인 후 곧바로 남자 집에서 생활하는 친영 제도가 정착하게 되었다.
- 장자 중심의 제사와 상속제 확산: 제사는 반드시 큰아들이 지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었고, 재산 상속에서도 큰 아들이 우대를 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딸들이, 그 후 점차 큰아들 외의 아들들도 제사나 재산 상속에서 그 권리를 잃어 갔다.
- 양자 입양 일반화: 조선 후기에는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는 양자를 들이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 동성(同姓) 마을 형성: 부계 위주의 족보를 적극적으로 편찬하였고, 같은 성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 사는 동성 마을을 이루게 되었다.

15. [정답 및 해설] ①

♣ 「동국통감」(성종)

서거정 등이 편찬한 최초의 통사로 고조선부터 고려말 말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서술하였으며,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훈구 관료들이 골격을 세우고 사림이 사론을 씀으로써 양자의 입장이 절충되어 있다.

💡 오답노트

- ② 기전체에 대한 설명이며, 동국통감은 편년체이다.
- ③ 이종휘는 「동사」에서 고구려 역사 연구를, 유득고는 「발해고」에서 발해사 연구를 심화하였다. 이들은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만주 지방까지 확대시킴으로써 한반도 중심의 협소한 사관을 극복하는 데 힘썼다.
- ④ 한치윤은 500여 종의 중국 및 일본의 자료를 참고하여 「해동역사」를 편찬하여 민족사 인식의 폭을 넓히는데 이바지하였다.

16. [정답 및 해설] ①

♣ 의궤

- ② 조선 초기부터 제작되었으나, 임진왜란 이전의 것은 현재 남아 전해지는 것이 없다.
- ➔ 의궤는 조선 초기부터 조선시대 왕실에서 거행된 여러 가지 의례의 전모를 소상하게 기록한 서책이다. 왕실의 혼사, 장례, 행차 등 그림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의궤로 제작되었고 후대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1601년(선조 34)에 만들어진 의인왕후(懿仁王后)의 장례에 대한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며, 19세기까지 시기가 내려올수록 종류도 많아지고 질적인 수준도 높아졌다.
- ③ 1866년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략하였다가 40여 일만에 물러가면서 외규장각에 있던 다수의 의궤를 약탈하였다.
- ④ 프랑스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던 외규장각 의궤는 2011년 임대의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반환되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 ➔ 파리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재불 서지학자 박병선이 발견하였고, 한국 정부와 학계의 반환요청이 계속되어 왔다. 1991년 협상이 처음 시작되었고, 2010년 5년 단위의 임대방식으로 반환에 합의하여 2011년 4월과 5월에 걸쳐 모두 반환되었다. 2007년 6월 '조선왕조 의궤'로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유산에 지정되었다.

❁ 병인양요와 외규장각 도서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은 강화도에 40여 일 만에 물러가면서 당시 화폐 가치로 3만 8천 달러에 해당하는 금·은괴 180상자, 보물, 화폐, 곡식, 도서 등을 약탈하였다. 특히 이들은 5000여 점에 달하는 소장품을 모두 태우고 강화도 외규장각에 보관 중이던 도서 가운데 일부인 300여 점의 주요 국왕의 어람용 왕실 의궤만 가져가 저들의 구립 도서관에 소장하였다.

1993년 9월에 한국을 방문한 미케랑 프랑스 대통령은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이 약탈해 간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제 우리도 고속 철도 사업권으로 화답하였는데, 프랑스측은 자국의 반대여론과 박물관 직원들의 조직적인 저항을 구실로 그 후 협상 과정에서 반환하지 않으려고 5년마다 자동으로 연장되는 장기 대여방식과 이 책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닌 문화재와 교환하자고 우리 측에 제의하였다. 이 후 2011년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때 5년 단위 변경 가능한 영구임대방식으로 국내에 반환되었다.

📌 오답노트

① 왕의 행적과 국정 전반을 기록한 것으로 천재지변에 관한 기록까지 소상히 담고 있어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설명이다.

17. [정답 및 해설] ②

♣ 광무개혁(1897~1904년)

□ 성격

① 구본신참(舊本新參): '옛 제도를 근본으로 하되 새로운 것을 참작한다'

② 점진적 개혁: 동도서기론에 입각하여 점진적 개혁 추구하였으며, 갑오·을미개혁의 급진성을 비판함

□ 내용

정치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법규교정소] 제정(1899)→ 전제 군주국 표방, 전제군주체제 강화 궁내부 강화[광무개혁의 실제적 주도기관]
경제	양전사업[양지아문], 지계발급[지계 아문]: 민생안정, 재정확보가 목적 식산흥업 정책(상공업 진흥책): 한성 전기회사, 대한 천일 은행 등 설립, 전차부설, 전화 가설, 백동화 주조
군사	국방력 강화: 원수부설치[황제가 육해군 통솔], 서울의 시위대와 지방의 진위대 증강, 무관학교 설립
교육	교육 진흥책: 실업 교육과 기술 교육 강조 → 상공학교, 의학교 설립, 한성 의학교 설립, 유학생 파견
대외정책	간도관리사 이범윤파견(1902), 블라디보스토크(해상위)통상사무관 파견 한·청 통상조약(1899) 체결: 청과 양국 황제 명의로 종속관계가 아닌 대등한 주권국가로서 체결
기타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1900), 광제원 설치, 만국우편연합 가입, 파리만국박람회 참여, 호적에서 신분 기입란 없음

📌 오답노트

② 입헌 군주제와 의회 정치 추진➔ 이 시기 입헌 군주제와 의회 정치 추진은 독립협회의 주장이다.

대한제국은 1899년 제정한 대한국국제를 통해서 대한제국이 만세불변의 전제정치국가이며, 황제권의 무한함을 강조하고, 육·해군의 통수권·입법권·행정권·사법권·외교권·관리임명권 등을 모두 황제의 대권으로 규정하였다.

18. [정답 및 해설] ②

♣ 동학농민운동(1894년)



고부농민봉기[만석보 등 조병갑의 폭정에 맞서 사발통문을 돌리고 고부관아 점령]

⇒ 안핵사 이용태의 횡포 ⇒ 무장봉기[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중심, 보국안민·제복구민 제창]

⇒ 백산 집결[백산 창의문, 4대 강령 선포] ⇒ 황토현 전투[전라감영군 격파]

⇒ 장성 황룡촌 전투[장대로 경군 격파] ⇒ 전주성 점령

⇒ 청군 파견[아산만, 민씨정권의 요청] ⇒ 일본군 파견[인천, 텐진조약 구실]

⇒ 전주 화약(5.8)[폐정개혁을 조건으로 농민군 해산]

⇒ 전라도 53개 군에 집강소 설치

[관민상화 형태, 민정기관과 치안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농민자치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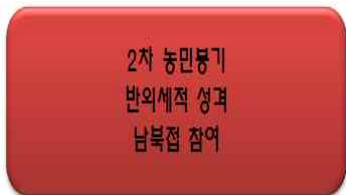
· 집강소: 전주화약에 의해 내정을 개혁할 목적으로 동학농민군이 전라도 53개 군에 실시한 농민 자치기구, 민정기관과 치안기구로 역할



정부는 자주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교정청(6.11) 설치

일본의 경복궁 점령(6.21), 청일 전쟁 발발(6.23)

1차 갑오개혁(6.25) 진행[교정청 해체, 군국기무처 설치, 1차 김홍집 내각]



농민의 재봉기(삼례)(9.18) ⇒ 남·북접, 노산 집결 ⇒ 공주 우금치 전투의 패배(11월)

이후 일본군, 정부군, 일부 양반 유생의 민보군에 의해 토벌되고 잔여 농민들은 을미의병에 가담하고 활빈당으로 계승됨

※참고-2차 갑오개혁(11.21)[2차 김홍집 내각수립]

+ 참고 보은전투

북접 동학농민군(호서·경기 동학군)은 우금치 전투 이후 12월 1일에 장수와 무주, 12월 9일에 영동을 거쳐 충북 보은까지 퇴진하였다. 그리고 보은 북실에서 최후의 전투를 하였다.

현재 보은 전투가 있었던 보은 북실에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은 전투는 공무원 준비하면서 모르셔도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그럼 출제가 됐다고 비판하시겠지만, 단순히 난이도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정답과 관련없는 보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교재 밖의 주제까지 저희가 찾아서 공부할 시간이나 여유는 없는 거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교재 이면의 무언가를 더 공부하거나 지엽적인 내용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으며, 하나의 주제를 꼼꼼히 정리하고 암기하여 정확하게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오답노트

② 청이 조선 정부의 요청으로 파병하자, 일본은 임오군란(⇒갑신정변 직후) 때 맺은 텐진(천진)조약을 구실로 파병하였다.

❁ 텐진 조약(1884년)

제1조 청국은 조선에 주둔한 군대를 철수한다. 일본국은 공사관 호위를 위해 조선에 주재한 병력을 철수한다.

제3조 앞으로 만약 조선에 변란이나 중대 사건이 일어나 청,일 두 나라나 어떤 한국가가 파병을 하려고 할 때에는 마땅히 그에 앞서 쌍방이 문서로서 알려야 한다. 그 사건이 진정된 뒤에는 즉시 병력을 철수시키고 잔류시키지 못한다.

19. [정답 및 해설] ①

♣ 토지조사사업(1912~1918년)

②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은 더 많은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수리시설의 확대와 품종교체, 화학비료 사용증가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 수리조합비 등 많은 비용을 농민들이 부담함으로써 많은 농민들이 소작농으로 몰락하기도 하였다.

- ③ 1930년대 이후 일제는 일본을 발전된 공업지역으로, 만주를 농업과 원료 생산 지대로 만들고, 한반도를 경공업 중심의 중간 지대로 만들기 위해 조선공업화 정책을 펼쳤다. → 일·만·선 경제 블록
- ④ 1940년대 전시동원체제 하에서 세금을 늘리고 저축을 강요하여 마련된 자금은 군수기업에 집중 지원되었다. → 전시통제 경제의 강화

💡 오답노트

- ① 1910년대 시작된 토지조사사업은 토지의 소유권, 토지 가격, 지형 및 용도를 조사한 것으로, 토지에 대한 지주의 권리와 **농민의 경작권**을 함께 인정하였다. → **토지조사사업 이후에는 농민의 도지권(관습상 영구 경작권 등)과 입회권(마을 공유지 이용 권리)등은 부정되고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되어 지주제가 강화되었다.**

20. [정답 및 해설] ②

♣ 문제분석

2012년 경찰 한국사 시행이후 현대사 이 문제를 제외하고 4문제 출제되었는데, 2문제는 광복 이후의 주요 사건(사건순서, 모스크바 3상 회의 반응), 2문제는 통일 관련(7.4남북공동성명, 통일 관련 주요 사건 순서)하여 출제되었습니다.

♣ 사료분석

(가) 이승만의 정읍발언 (나) 김구의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 광복 이후의 주요사건

카이로 선언(1943년 11월) → 알타 회담(1945년 2월) → 포츠담 선언(1945년 7월) → 민족의 해방(1945년 8월) → 조선건국위원회(1948년 8월) → 미군정(1945년 9월) →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1945년 12월) → 미·소공동위원회 (1차 1946년 3월) → 정읍발언(1946년 6월) → 좌우합작위원회(1946년 7월) → 좌우합작7원칙 발표(1946년 10월) → 미·소공동위원회(2차 1947년 5월) → 유엔 총회 결의안(1947년 11월) → 유엔 소총회(1948년 2월) →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1948년 2월) → 제주도 4·3사건(1948년 4월) → 남북협상(1948년 4월) → 5·10 총선거 실시(1948년 5월) → 헌법제정(1948년 7월) → 대한민국 정부수립(1948년 8월) → 반민족행위 처벌법 제정(1948년 9월) → 여수·순천 10·19사건(1948년 10월) → 농지개혁법(1949년 6월, 단 시행은 1950년 3월)

끝,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1차 시험 응시하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